

01. ① 02. ① 03. ④ 04. ② 05. ②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⑤ 16. ② 17. ① 18. ⑤ 19. ③ 20. ⑤

**1. 경제 주체와 경제 활동의 이해**

**정답 해설:**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는 가게이므로, A는 기업이고 B는 가게이다. ① 기업은 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는 경제 주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가게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③ 학생이 유료로 관람한 영화는 생산물인 서비스에 해당한다.
- ④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물이므로,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 ⑤ 상품의 저장, 운송, 판매 활동은 생산 활동에 포함된다.

**2. 경제 체제의 유형별 특징 이해**

**정답 해설:**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이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므로, A는 계획 경제 체제, B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① 경제 문제 유형 중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경제 문제 유형 중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 방법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 ③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물 및 생산된 가치의 분배와 관련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중시한다.
- ④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이다.
- 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계획 경제 체제에서와 달리 개별 경제 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하고 경쟁을 중시한다.

**3.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해**

**정답 해설:** (가)는 소비자의 선호 증가에 따른 X재의 수요 증가 요인, (나)는 X재 원료인 Y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X재의 공급 감소 요인, (다)는 X재와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인 Z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X재의 수요 감소 요인에 해당한다. ④ X재의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는 모두 X재의 균형 가격 상승 요인이다. 따라서 (가), (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X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다.
- ② (나)는 X재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 ③ X재의 수요만 감소할 경우 X재의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

⑤ X재의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는 모두 균형 거래량 감소 요인이다. 따라서 (나), (다)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X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4. 환율 변동의 이해

**정답 해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변동으로 우리나라 여행객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하였으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고, 엔/달러 환율 변동으로 미국으로 유학 온 일본인 유학생의 미국 유학 학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엔/달러 환율은 상승하였다. ②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공급 증가 요인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① ①은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의미한다.
- ③ 미국인의 일본에 대한 투자 증가는 일본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공급 증가 요인이다. 이는 엔/달러 환율 하락 요인이다.
- ④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은 증가한다.
- ⑤ 엔/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일본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은 증가한다.

#### 5. 외부 효과의 이해

**정답 해설:** 갑국 정부가 각각의 시장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한 결과 X재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며, Y재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감소하였고, Z재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갑국 정부가 X재 시장에서 수요 감소 정책(소비자에게 세금 부과), Y재 시장에서 공급 감소 정책(생산자에게 세금 부과), Z재 시장에서 공급 증가 정책(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사용하여 외부 효과를 해결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시행 전 X재 시장에서는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Y재 시장에서는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 Z재 시장에서는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의 사적 편익은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다.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의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정답 ②**

#### [오답피하기]

- 나. 생산 측면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많다.
- 르. 정부는 X재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Z재 생산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6. 정부 실패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사례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경제 활동에 개입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나타낸다. ① 정부가 주류 상품 시장에 개입한 이후 암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는 정부 실패의 사례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가)는 독과점 폐해, 공유지의 비극, 정보의 비대칭성, 긍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7. 잉여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통해 X재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거래 참여 여부 및 소비자 잉여(=최대 지불 용의 금액-시장 가격)와 생산자 잉여(=시장 가격-최소 요구 금액)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 소비자       | 갑   | 을   | 병   | 정           | 무           |
|-----------|-----|-----|-----|-------------|-------------|
| 거래 참여 여부  | 참여  | 참여  | 참여  | 참여하지<br>않음. | 참여하지<br>않음. |
| 소비자 잉여(원) | 900 | 500 | 100 | -           | -           |
| 생산자       | A   | B   | C   | D           | E           |
| 거래 참여 여부  | 참여  | 참여  | 참여  | 참여하지<br>않음. | 참여하지<br>않음. |
| 생산자 잉여(원) | 500 | 300 | 100 | -           | -           |

④ 총잉여는 2,400원(=소비자 잉여 1,500원+생산자 잉여 900원)으로, 시장 판매 수입인 3,300원(=1,100원×3개)보다 작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병은 X재를 구입하고, 정은 X재를 구입하지 않는다.
- ② 시장 거래량은 3개이다.
- ③ 갑의 소비자 잉여는 900원이고, A의 생산자 잉여는 500원이다.
- ⑤ X재 생산자에게 개당 1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자의 최소 요구 금액은 A가 500원, B가 700원, C가 900원, D가 1,200원, E가 1,500원이 된다. X재 시장 가격이 1,100원이므로 이 경우에도 시장 가격보다 최소 요구 금액이 낮은 A, B, C만 X재를 판매하게 되어 시장 거래량은 보조금 지급 전과 같이 3개로 변함이 없다.

**8. 가격 규제 정책의 이해**

**정답 해설:** t+2기에 갑국 정부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6달러 수준에서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므로, 갑국 정부가 시행한 가격 규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t기~t+2기의 시장 가격, 거래량, 판매 수입을 나타

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시장 가격(달러) | 거래량(만 개) | 판매 수입(만 달러) |
|------|-----------|----------|-------------|
| t기   | 8         | 6        | 48          |
| t+1기 | 10        | 8        | 80          |
| t+2기 | 6         | 4        | 24          |

⑤ 생산자 잉여는 t+1기가 32만 달러(=8달러×8만 개×1/2)이고, t+2기가 8만 달러(=4달러×4만 개×1/2)이다. 따라서 t+2기의 생산자 잉여는 t+1기보다 24만 달러 감소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균형 가격은 t기가 8달러, t+1기가 10달러이다.
- ③ 판매 수입은 t기가 48만 달러, t+1기가 80만 달러이다.
- ④ 거래량은 t+1기가 8만 개, t+2기가 4만 개이다.

**9. 단리와 복리의 이해**

**정답 해설:** 예치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정기 예금 상품 A는 단리를 적용한 상품이고, 예치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정기 예금 상품 B는 복리를 적용한 상품이다. ∴ B는 예치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하는 상품이므로, 전년 대비 원리금 전체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매년 10%씩 적용한다. 따라서 B에 가입할 경우 전년 대비 원리금의 증가율과 연 이자율은 각각 10%로 매년 같다. ∴ A, B의 예치 기간별 원리금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만 원)

| 구분 | 예치 후 1년 | 예치 후 2년 | 예치 후 3년 | 예치 후 4년 |
|----|---------|---------|---------|---------|
| A  | 1,105   | 1,210   | 1,315   | 1,420   |
| B  | 1,100   | 1,210   | 1,331   | 1,464.1 |

예치 기간이 2년일 때 원리금은 A와 B 각각 1,210만 원으로 같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A와 B는 모두 저축성 예금이다.
- ㄴ. 예치 기간 2년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B가 A보다 크다.

**10. 합리적 선택의 이해**

**정답 해설:**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이다. A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 'A 구입의 편익 > A 구입의 기회비용(=A 구입의 명시적 비용+A 구입의 암묵적 비용)'이며, A 구입의 암묵적 비용은 A 대신 B를 구입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 즉, 'B 구입의 편익-B 구입의 명시적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A를 구

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A 구입의 편익-A 구입의 명시적 비용'이 'B 구입의 편익- B 구입의 명시적 비용'보다 커야 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값이 □□ 백화점에서 A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10-(가) > (나)-6'를 의미한다. 값이 A를 구입한 이후, ○○ 인터넷 쇼핑몰에서 B를 □□ 백화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안>과 <2안>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값이 ○○ 인터넷 쇼핑몰에서 B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명시적 비용은 종전의 6만 원에서 5만 1천 원(=6만원 × 0.8+3천 원)으로 감소한다. ㄱ. 값이 A를 구입한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10-(가) > (나)-6'이어야 한다. (나)가 '17'이 되는 경우 B를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므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17'이 될 수 없다. ㄴ. (가), (나)가 모두 '7'인 경우 'A의 편익-A의 명시적 비용'은 3만 원(=10만 원-7만 원)이고, 'B의 편익-B의 명시적 비용'은 1만 9천 원(=7만 원-5만 1천 원)이므로, A를 환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ㄷ. <2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나)-5.1 > 10-(가)'이어야 하므로, (가)와 (나)의 합은 '15.1'보다 커야 한다.

**11.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이해**

**정답 해설:** 가계 소비 위축과 고용 악화는 경기 침체 시 발생하는 현상에 해당한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 중앙은행은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의 매각·매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입은 시중에 자금을 방출하여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확대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정책은 긴축 재정 정책에 해당한다.
- ②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 ④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해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에 해당한다.
- ⑤ 확대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화량은 증가한다.

**12. 고용 지표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t년과 t+20년의 고용 관련 인구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만 명)

| 구분        | t년   |      | t+20년 |      |
|-----------|------|------|-------|------|
|           | A 지역 | B 지역 | A 지역  | B 지역 |
| 15세 이상 인구 | 600  | 400  | 400   | 400  |
| 취업자 수     | 300  | 280  | 200   | 280  |
| 실업자 수     | 60   | 40   | 40    | 40   |
| 비경제 활동 인구 | 240  | 80   | 160   | 80   |

③ B 지역의 취업자 수는 t년과 t+20년이 각각 280만 명으로 같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t년 A 지역의 실업자 수는 60만 명이다.
- ② t년 B 지역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80만 명이다.
- ④ t+20년에는 실업자 수가 A 지역과 B 지역이 같고, 경제 활동 인구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적으므로, t+20년의 실업률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 ⑤ 갑국 전체의 고용률은 t년이  $58\% = (580만\ 명 / 1,000만\ 명) \times 100$ 이고, t+20년이  $60\% = (480만\ 명 / 800만\ 명) \times 100$ 이다.

**13. 국민 경제의 균형 변동 이해**

**정답 해설:** (가)는 물가 수준은 변함이 없고 실질 GDP가 감소한 상황을, (나)는 실질 GDP는 변함이 없고 물가 수준이 하락한 상황을 나타낸다.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 (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기업의 투자 지출 감소는 총수요 감소 요인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총공급 증가 요인이므로, 이는 (나)의 요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이고, 노동 생산성 상승은 총공급 증가 요인이다. 이 경우 실질 GDP가 증가하므로, (가)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물가 수준이 변함이 없는 (가)를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④ 물가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 화폐 구매력은 증가한다.
- ⑤ (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 모두 감소해야 한다.

**14. 비교 우위의 이해**

**정답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 t기      | t+1기    |
|-------------------|----|---------|---------|
| X재 1개 생산의<br>기회비용 | 갑국 | Y재 2개   | Y재 4/3개 |
|                   | 을국 | Y재 1/2개 | Y재 1/2개 |

④ t기와 t+1기에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은 각 시기 X재 또는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 비교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t기에는 X재 1개당 Y재 1/2개보다 많고 2개보다 적은 범위에서, t+1기에는 X재 1개당 Y재 1/2개보다 많고 4/3개보다 적은 범위에서 교역할 경우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이 3:5일 경우 t기에는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지만, t+1기에는 X재에 비교 우위를 갖는 을국에만 이익이 발생하고 Y재에 비교 우위를 갖는 갑국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을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재 1/2개이고 교역 전 을국의 생산점이 A(X재 30개, Y재 10개)이므로 A점에서 을국이 Y재를 10개 추가 생산할 경우 X재의 최대 생산량은 10개이다. 따라서 을국은 X재 15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다.
- ②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t기가 Y재 2개, t+1기가 Y재 4/3개이다.
- ③ 갑국의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t기와 t+1기 모두 을국보다 크므로, 두 시기 모두 갑국은 Y재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진다.
- ⑤ t+1기에 X재에 비교 우위를 가진 을국이 X재 30개와 Y재 24개를 소비하였다는 것은 을국이 X재 50개를 생산한 후 갑국에 X재 20개를 수출하고 Y재를 24개 수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양국 간 X재와 Y재의 교환 비율은 5:6이다.

**15.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이해**

**정답 해설:** 자유 무역을 하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시장 거래 가격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상승하므로, X재의 시장 거래 가격은 (가)를 시행할 경우 30달러, (나)를 시행할 경우 25달러가 된다. 또한, (나)에서 국내 X재 생산자에게 X재 1개당 보조금 10달러를 지급하면 시장 거래 가격인 25달러에서 국내 공급량이 25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 무역을 하는 경우, (가)와 (나)를 시행한 경우의 갑국 X재 시장의 거래 가격, 국내 소비량, 수입량 등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거래 가격(달러) | 국내 소비량(개) | 수입량(개) |
|----------|-----------|-----------|--------|
| 자유 무역 시  | 20        | 50        | 40     |
| (가) 시행 시 | 30        | 40        | 20     |
| (나) 시행 시 | 25        | 45        | 20     |

- ⑤ 소비 지출액은 (가)를 시행할 경우 1,200달러(=30달러×40개), (나)를 시행할 경우 1,125달러(=25달러×45개)이다. 따라서, (나)를 시행할 경우의 소비 지출액은 (가)를 시행할 경우보다 75달러 작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가)를 시행할 경우 국내 소비량은 40개이다.
- ② (가)를 시행할 경우 관세 수입은 200달러(=10달러×20개)이다.
- ③ (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은 250달러(=10달러×국내 공급량 25개)이다.
- ④ 수입량은 (가)와 (나)를 시행할 경우 각각 20개로 같다.

**16. 가계의 수입과 지출 이해**

**정답 해설:** ㄱ. 갑의 7월 대비 10% 증가한 8월 지출이 220만 원이므로 7월 지출은 200만 원이다. 따라서 ㉠은 '40'={200-(120+35+5)}이다. ㄴ. 갑의 지출 중 소비 지출

에 해당하는 항목은 식료품비와 이동 통신비이다. 갑의 소비 지출은 7월이 125만 원, 8월이 130만 원이므로 8월의 소비 지출이 7월에 비해 5만 원 증가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월급과 주식 배당금은 모두 경상 소득에 해당한다. 갑은 7월(월급 280만 원)과 8월(월급 280만 원+주식 배당금 20만 원) 모두 경상 소득만 발생하였고, 비경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 갑의 비경상 소득은 7월과 8월이 각각 '0'으로 같다.

ㄷ. 대출 이자와 사회 보험료는 비소비 지출에 해당한다. 갑의 처분 가능 소득은 7월이 205만 원(=280만 원-75만 원). 8월이 210만 원(=300만 원-90만 원)이다.

**17. 경상 수지의 이해**

**정답 해설:** 갑국과 을국만 거래하는 경우 갑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과 서비스 수지 수취액은 을국의 상품 수지 지급액과 서비스 수지 지급액과 같다. ㉠ t년에 갑국의 상품 수지가 20억 달러 흑자라고 하였으므로 ㉡은 '20'이다. 또한, 갑국의 경상 수지가 40억 달러 흑자라고 하였으므로 갑국의 서비스 수지도 20억 달러 흑자이다. 따라서 ㉢은 '30'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t년 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20억 달러 흑자이다.

③ t+1년 갑국의 경상 수지는 10억 달러 흑자(=상품 수지 10억 달러 적자+서비스 수지 20억 달러 흑자)이다. 이는 갑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을 증가시켜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해외 지식 재산권 사용료를 포함하는 항목은 서비스 수지이다. t+1년 을국의 서비스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이다.

⑤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t년이 40억 달러, t+1년이 20억 달러이다.

**18. 국내 총생산의 계산**

**정답 해설:**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로 측정할 수 있으며, 부가 가치는 '판매 수입-중간재 비용'이다. A 기업~C 기업의 판매 수입, 부가 가치, 생산 비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억 달러)

| 구분    |        | A 기업 | B 기업 | C 기업  |
|-------|--------|------|------|-------|
| 판매 수입 |        | 300  | 400  | 1,000 |
| 부가 가치 |        | 300  | 100  | 600   |
| 생산 비용 | 임금     | 150  | 50   | 300   |
|       | 중간재 비용 | 0    | 300  | 400   |

⑤ 이윤은 '판매 수입-생산 비용'이므로, 이윤은 A 기업이 150억 달러, B 기업이 50억 달러, C 기업이 300억 달러이다. 따라서 C 기업의 이윤은 A 기업과 B 기업의 이윤을 합한 200억 달러보다 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갑국의 GDP는 1,000억 달러이다.
- ② B 기업이 창출한 부가 가치는 100억 달러로 GDP의 10%이다.
- ③ A 기업이 지불한 임금은 150억 달러, C 기업이 지불한 임금은 300억 달러이다.
- ④ 생산 비용은 A 기업이 150억 달러, B 기업이 350억 달러이다.

**19. 경기 변동의 이해**

**정답 해설:**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 GDP의 증가율로,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실질 GDP)×100'으로 계산한다. ③ 기준 연도가 2023년인 상황에서 갑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물가 수준이 2%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98'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을은 2023년 대비 2024년의 물가 수준이 2%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므로 2024년의 GDP 디플레이터를 '102'로 예측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은 경우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작고, 100보다 큰 경우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 따라서 갑과 달리 을은 2024년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갑의 예측대로 2023년 대비 2024년에 실질 GDP가 1% 증가하고, 물가 수준이 2% 하락하기 위해서는 2024년의 명목 GDP는 2023년보다 작아야 한다.
- ② 을은 2024년 GDP 디플레이터가 100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④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측정한다. 갑과 을은 모두 2023년 대비 2024년의 A국 경제 성장률을 1%로 예측하였으므로, 갑과 을 모두 2024년 경제 규모가 2023년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⑤ GDP 디플레이터로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경우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크면 물가 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크면 물가 수준은 하락한다. 따라서, 갑은 2023년 대비 2024년 실질 GDP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고, 을은 2023년 대비 2024년 명목 GDP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20. 금융 상품과 투자의 이해**

**정답 해설:** ⑤ 갑이 1,000달러를 (나)와 (다)에 각각 500달러씩 배분하여 투자했을 때 <상황 1>과 <상황 2> 각각의 경우의 t 시점 투자액, t+1년 시점의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과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t 시점<br>투자액(달러) | t+1년 시점          |                |
|--------|-----------------|------------------|----------------|
|        |                 |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달러) | 원화 표시 자산 총액(원) |
| <상황 1> | (나)             | 500              | 605,000        |
|        | (다)             | 500              | 450,000        |
| <상황 2> | (나)             | 500              | 495,000        |
|        | (다)             | 500              | 550,000        |

t+1년 시점의 원화 자산 총액은 <상황 1>의 경우 1,055,000원이고 <상황 2>의 경우 1,045,000원이므로, <상황 1>의 경우가 <상황 2>의 경우보다 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상황 1>의 경우 (가)로 전액 투자했을 때 t+1년 시점에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은 1,100달러이고,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은 121만 원(=1,100달러×1,100원/달러)이다.
- ② <상황 2>의 경우 (가)와 (나)의 달러화 기준 투자 수익률은 각각 10%로 같고, (가)와 (나)는 각각 t+1년 시점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상황 2>의 경우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은 (가)로 전액 투자했을 때와 (나)로 전액 투자했을 때가 같다.
- ③ <상황 2>의 경우 (가), (나)로 각각 500달러씩 배분하여 투자하였을 때의 t 시점의 투자액, t+1년 시점의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과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t 시점<br>투자액(달러) | t+1년 시점          |                |
|--------|-----------------|------------------|----------------|
|        |                 | 달러화 표시 자산 총액(달러) | 원화 표시 자산 총액(원) |
| <상황 2> | (가)             | 500              | 495,000        |
|        | (나)             | 500              | 495,000        |

따라서, <상황 2>의 경우 (가), (나)로 각각 500달러씩 배분하여 투자하였을 때의 t+1년 시점의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은 99만 원이다.

- ④ 펀드 Z의 수익률은 <상황 2>의 경우가 <상황 1>의 경우보다 크고, (다)는 <상황 1>과 <상황 2>의 경우 모두 t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t+1년 시점의 원화 표시 자산 총액은 <상황 2>의 경우가 <상황 1>의 경우보다 크다.